

남녀 대학생의 의복규범에 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및 심리적변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황혜영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교수 박찬부

目 次

I. 서론	IV. 연구방법 및 절차
II. 이론적 배경	1. 측정도구
1. 의복규범	2. 표집대상 및 자료분석
2. 의복의 동조성-개성	V. 결과 및 논의
3. 자아정체감과 의복	VI. 결론 및 제언
4. 성역할정체감과 의복	참고문헌
III. 용어의 정의	ABSTRACT

I. 서론

의복이 인간행동이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이나 나간가지로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의복에 대한 흥미가 가장 높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기는 의복의 영향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Kefgen & Specht, 50, 1976). 청소년기는 역할의 모호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생활에서의 역할수행을 잘하기 위해 집단규범의 의복규범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사람들은 외양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 자기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적절한 외양에 대한 생각은 개인이 타인과 관련하여 평가할 때 집단가치와 연관된다. 그러한 비교와 평가는 평생을 통해 이루어가지만 외양을 통한 소속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과도기의 청소년들에게 가

장 침례하게 이루어진다. 의복과 외양과 관련된 집단규범이나 습관은 한 個人에게 구속력을 단련 시키기도 한다(Kaiser, 353~354, 1990).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의 대학생들은 대학입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인관계를 통해 자아에 대한 의식이 정립되어가는 시기로서,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집단규범을 따를 뿐만 아니라, 보다 자신의 개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우리사회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남-녀의 생활방식의 변화는 의복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대학생들과 같은 신세대 젊은이들의 복식에 있어서 성구분이 뚜렷하지 않게 되고 또한, 최근의 생활양식과 성역할태도 변화를 고려해볼때, 신세대 젊은이들의 의복에 대한 규범의식도 이와 관련하여 변

화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세대(X세대)란 각자의 개성이 달라서 공통된 특징으로는 묶을 수 없는 세대를 칭한다. 자율화 경향, 생활의 간편화, 스포츠의 생활화, 감각문화의 발달, 감각성 실용성 개별성 추구 소비형태로의 변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등 여러 가치관이 혼재된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대담한 자기 표현(염혜정, 조규화, 1992; 한국일보사회부, 32~38, 1990)으로 다양한 복식을 유행시키며 나름대로의 개성을 창출하고 있다(이제일, 1984).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개인중심사회에서나 개별성 추구의 신세대들은 어떤 고정된 관념의 규범이나 사회적 행동표준을 거부하는 경향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기대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거나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당혹감(Horn & Gurel, 202, 1981)을 갖기 때문에 이들의 규범과 관련한 의복 규범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사람들이 갖는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특성 때문에, 그들의 의복에 대한 규범의식이거나 복식행동 및 심리적 측면(자아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은 서로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의 대학생 집단의 의복에 대한 규범의식을 자신의 태도, 주관적 타인의 태도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그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복식행동, 자아정체감 및 성역할정체감과와의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신세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폭을 넓히고 이와 관련한 의류분야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연구문제 I. 각대상의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의 식간의 차이

1. 각 성별 및 각 학년별로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주관적 타인의 태도간에는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II.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복식행동, 자아정체감 및 성역할 정체감간의 관계

1.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복식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 및 동조성-개성과 자아정체감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성역할 정체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I.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 동조성-개성, 자아정체감, 성역할 정체감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

1.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 동조성-개성, 자아정체감 및 성역할 정체감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IV.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의식 차이(주관적 타인의 태도-자신의 태도)점수의 독특성 수준에 따른 차이

1.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의식 차이(주관적 타인의 태도-자신의 태도)점수는 독특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의복규범

의복규범이란 한 사회집단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받아들여진 옷차림(강혜원, 103, 1995)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藤原 康晴(藤原 康晴, 藤田 公子, 山本 昌子, 1989)등은 “복장의 사회규범에는 사회적인 강한 동조가 요구되는 엄한 복장규범과 착용자의 개성이나 심리적인 성격에 의존하는 유연한 복장규범이 있으나 이러한 복장규범이 법률이나 규칙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적고 대부분이 내재적인 것으로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의복규범을 그 특성에 따라 일반적 규범, 정숙성규범, 성역할 규범 및 학생의 규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복의 일반적 규범이란 연령, 신분, 계절, 상황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그 시대 사회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의성이 있는 외모와 옷차림을 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藤原康晴 등의 연구결과 일본 대학생들은 중년여성보다 전반적 의복규범에서 더 자유개방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藤原 康晴, 藤田 公子, 山本 昌子, 1989) 연령집단간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이명희(이명희, 1982)는 정숙성(modesty)을 예의성과 정숙성으로 구분하여 예의성을 성적 흥미와 직접 관계되지 않더라도 의복이나 장식을 통하여 도덕·관습 등의 사회규범을 보수적으로 준수하여 예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 정숙성은 성적흥미와 관련된 신체노출을 적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연구하였다.

Crawley는 정숙성과 매력과 관련된 성적 본능은 의복에 대한 의식에 활기를 주어, 그 성적인 본능들과 규범사이에는 정확한 균형을 좀처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Crawley, 1965). 의복 정숙성은 시대, 문화적배경, 사회적 규범, 종교, 성별, 연령 및 개인에 따라 다르다(Crawley, 1965; Kefgen & Specht, 64~68, 1976; Horn & Gurel, 94~95, 1981; Rosencranz, 186~193, 1972).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한 藤原康晴(藤原 康晴, 1982)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수용에 관심이 높거나 개성에 관심이 낮은 사람일수록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부(박찬부, 1978)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있는 여대생은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여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정숙한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의복정숙성의 성별차이는 대학생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보수적이었다(이명희, 1982; 인춘봉, 1974). 그러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

적이었다(강혜원, 1979)는 결과와 여자 중·고교생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보수적이었다는 결과(박미애, 박찬부, 1994) 등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희(이명희, 1982)는 자신에 대한 정숙성이 타인에 대한 정숙성보다 더 중요시되며 사춘기나 청년기에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정숙성을 더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의복은 타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상징이 된다. 성역할이란 특별히 남성-여성 각각에 대한 행동기대이다. 성을 기초로 한 역할의 차이는 사회적 행동의 가장 보편적인 결정요소이다(Horn & Gurel, 188, 1981). 의복규범에서 성역할규범이란 여성은 여성다운, 남성은 남성다운 외모와 옷차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여성 모두의 행동범위를 제한시켜 왔으나 현대에 들어와 성역할의 차이가 적어짐에 따라 의복착용에서도 性差가 감소되어 옷차림에서의 성구분이 모호하게 되었다. 성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강혜원, 298, 1995) 따라서 의복규범도 성역할 변화에 따라 많이 변화되었다.

학생의 규범이란 학생다운 옷차림과 태도 즉, 학생생활의 규범으로서 그 집단 내에서 수용된 바람직한 의복규범을 따르고 착용하는 행동과 태도를 말한다. Horn(Horn & Gurel, 210, 1981)은 전 미국 대학생의 캠퍼스 의상은 T-셔츠와 진바지 차림이 지배적 규범이고 각 지역의 캠퍼스마다 자체적 지방색이 가해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므로서 T-셔츠와 진바지를 대학생의 의복규범으로 인정하였다. 남·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혜원, 이선경, 1991)에서 통학이나 공식적 모임에는 76%이상이 교복이나 T-셔츠나, 남방셔츠, 잠바 등의 상의와 진바지 등의 바지로 구성된 캐주얼차림을 적절한 의복으로서 선호하였으며, 여대생을 대상으로한 정삼호의 연구(정삼호, 1977)에서 조사대상의 80%이상이 성격과는 관계없이 진을 실용적인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었으며 남성적인 여대생이 진을 좀더 젊음을 상징하는 의복으로 생각

하고 더 많이, 더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통적 규범, 생활양식, 인습을 따르는 경향이 높은 가정의 여고생들은 의복의 선택·착용에 있어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복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종립, 1985). 우리나라에서 학생의 의복규범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보다 고교생 중심연구가 많아 대학생에 관한 배경이 빈약하나 고교생에서 대학생에 이르는 직접적 연계성 차원에서와, 또한 동일한 신세대집단이라는 맥락에서 연결지어 생각할수 있다고 본다.

2. 의복의 동조성-개성

Horn(Horn & Gurel, 216~225, 1981)은 동조성을 개인들이 어떤 기존의 규범에 그들의 행동을 적용시키는 과정이며 한집단이 설정한 기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보고 이는 생활과 사회에 안정성을 부여하며, 개성은 흥미와 변화를 유발시키는 원동력이라 하였고, 고영복(고영복, 140, 1977)은 “동조행동은 개인내부의 조건(성격요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계의 조건(상황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였다.

이러한 동조성은 청년기의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이런 유형의 사회화가 가장 명백하게 상징되는 것 중의 한가지가 바로 의복이다(Kefgen & Specht, 20, 1976). 의복의 동조성이란 의복규범을 받아들이거나 그 의복규범을 고수하는 것을 말한다(강혜원, 103, 1995). 즉 친구나 집단의 규범에 준하여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소속감이나 타인의 승인을 얻으려는 의복행동을 말하며 개성이란 자신을 집단의 다른사람과 구별하여 착용함으로써 자기현시를 하고자 하는 의복행동을 말한다(강혜원, 1974). 의복의 동조성은 따라서 사회적 동조성과 비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Flügel(Flügel, 140, 1971)은 모든 인간은 주어진 규범들에 동조함으로써 소속감과 정체감을 추구하며 동시에 개성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특징을 성

취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인간성의 모순이 가장 잘 반영되는 곳이 의복이며 이러한 모순을 개인의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명희(이명희, 1982)의 연구 의하면 동조성이 강한 여대생은 예의·정숙성, 성적매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자는 동조성과 예의·정숙성 둘다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동질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이며, 후자는 젊은여성들의 이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나 행동이 사회적 측면에서도 더욱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신옥순(신옥순, 1977)의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낮을수록 외모상의 동조성이 높게 나타나며 독립성 및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외모상의 개성이 높게 나타났다.

Taylor와 Compton(Taylor & Compton, 1968)은 의복에 있어서 동조성을 중시하는 여대생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 하며 심미성에 낮은 가치를 둔다고 하였으며, 김재희(김재희, 1994)는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려는 개성의 욕구와 남들과 비슷해지고자 하는 동조의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어, 이 두가지의 욕구는 개인의 성격이나 배경에 따라 어느 한쪽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개성은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독특한 특성이나 특징을 의미한다. 개성은 복식이나 외양으로 표현할수 있으며, 동조성과 상반된 복식행동이다(Kefgen & Specht, 20~21, 1976).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들(김병미, 1975; 강혜원, 1974; 임춘봉, 1974)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의복의 동조성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 의복동조성이 높고, 정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아정체감과 의복

현대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자기(self)는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즉 ‘대상으로서의 자기’와 ‘과정으로서의 자기’이다. 전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태도, 감정, 지각으로 정의되는

인지자로서의 개념(정인희, 이은영, 1996 ; 신옥순, 1977)이며, 가장 추상적이고 총괄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의 주체에 대한 총체적 의식을 의미한다(Kaiser, 193, 1990). 후자는 현실에 적응하여 현실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의 기능이며(김명훈, 정영운, 204~206, 1981) 행동과 적응으로 통제하는 일군의 심리적과정으로 정의되는 행위자로서의 개념이다(정인희, 이은영, 1996 ; 신옥순, 1977). 자기에 대한 두 개념을 별개의 용어를 사용해서 전자를 자기(self)라 하고 후자를 자아(ego)라 하는데, 이 두 용어를 혼용하거나(이지영, 이관용, 홍승철, 566, 1973), 구별하여 사용(정인희, 이은영, 1996)하고, 또한 Rentz 등의 연구결과 자기와 자아가 독립적이지 아니라는 견해(이지영, 이관용, 홍승철, 574~584, 1979)도 있어 자기와 자아를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E. Erickson(이훈구, 106~111, 1985 ; 이인자, 223~228, 1993)은 인간의 심리 사회적 발달을 8 단계로 나누고 제5단계인 청소년기를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자아 정체감의 구성을 개인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과 심리 사회적 정체감(psycho-social identity)으로 나누어, 개인적 정체감은 시간이 경과함에도 유지되는 개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의미하며, 심리 사회적 정체감이란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일체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의 정의에서는 자아(ego)의 측면과 자기(self)의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신옥순, 1977). Kaiser에 의하면, 자기(self)란 가장 추상적이고 총괄적인 개념으로서 일련의 정체감들(identities)이 하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주체에 대한 총체적 의식을 의미한다. 정체감은 맥락을 통해서 자기를 지각하도록 하는 개념으로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와 상황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 질 때 구축되고 결정되는 상황속에서의 자기이다(Kaiser, 96, 186, 193, 1990)라고 설명하므로써 자기와 정체감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 심리학적 연구는 사적인 자기개념은 공적인 자기 표현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Schlenker는 일반적으로 개개인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적 행위들이 그들 자신을 대표한다고 추론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자기 견해를 조절한다고 하였으며 공적인 자기표현이 사적인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정체성 발달의 차이에 의해 조정된다고 하였다(Berzonsky, 1995).

청년기의 자아정체감과 의복과의 관계를 보면, 자아정체감 확립은 청년기에 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행위규범이 무엇인가를 정해야 한다(이훈구, 101, 1985). 청년들은 자기동일시 과정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표현하며 그 위치를 정한다. 특히 외모관리를 통해 사회적 맥락속에서 정체감을 기대하고 나타낸다. 이러한 외모관리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 특히 청소년기에 현저하게 이루어 진다. 공적으로 자기의식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제적으로 더 유행적이고 사회적 규범에 더 동조적이다(Kaiser, 181~186, 1990). Solomon과 Schopler(Kaiser, 186, 1990)의 연구에서 공적인 자기의식이 높은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의복에 더 흥미를 보이고, 일상의 의복 결정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가해서 이런 남성들은 경우에 맞지 않은 의복을 착용했을 때 더욱 더 자아의식적 감각을 표현하고, 그러한 차림이 타인에게 주는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여성은 여성의 사회화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의복과 더 관련을 갖고 있지만, 여성과 관련되는 외모관리는 여성의 일반적인 생활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귀인의 근거가 쉽사리 공적인 자아의식으로서 자이나게 되지는 않을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한 신옥순(신옥순, 1977)의 연구에서, 자기수용 자기주장 등의 자아정체감 하위적도는 외모에 대한 자기

개념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독특성, 자기주장은 외모상의 개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자기수용적일수록 외모에 대한 자기개념이 높고, 독특성과 자기주장이 강할수록 외모상의 개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박미애등(박미애, 박찬부, 1994)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의 하위척도인 독특성이 강할수록 복잡규범을 중요시 하지 않았고 개성적인 반면, 자기수용적인 학생일수록 학생의 복장에 대한 규범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Zentner(Zentner, 1971)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인 경우 자아 수용도가 낮은 학생이 의복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역할정체감과 의복

성성(gender)은 사회적으로 조성되고 구축되는 반면 성별(sex)은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가리킨다 (Kaiser, 65, 418, 1990). 1960년대 이후에 사회과학자들은 남자와 여자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낼 때 성별(sex)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남자와 여자가 학습한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변화의 정도를 나타낼 때 성성(gender)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 하므로써 성별(sex)과 성성(gender)의 구분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Eicher & Roach-Higgins, 1~28, 1993).

역할이란 각 개인이 속한 사회내에서 갖게되는 특정한 위치, 범주 및 이에 관련된 행동양식이다 (Horn & Gurel, 186, 1981). 그중에서 성역할이란 성별에 따라 사회문화내에서 인정되고 기대되는 행동과 특질들의 총체로서 성역할태도나 정체감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고(마가렛 미드, 조혜정역, 1991) 한 문화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된다. 또한 성역할은 개인의 행동, 의식구조, 동기, 태도 등에 가장 철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전병계, 276, 1986).

이와같이 성역할의 개념은 주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에서 비롯되어(박선영, 1988)

사회문화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남·녀의 속성들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념을 말하며,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세계의 많은 사회에서 비교적 공통성있게 존재하고 있다. Leaper(Leaper, 1995)에 의하면 성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결과 일반사람들이 갖고있는 남성성 특질에 대한 고정관념은 대표적으로 독립성, 신뢰, 그리고 확고부동함과 같은 유용하고 능동적 특성을 망라한 반면, 여성성 특질에 대한 고정관념은 대표적으로 이해, 동정, 애정등과 같은 사회정서적 또는 공동사회적 특징을 포함하였다고 하였다. 서구사회에서 남자는 전통적으로 가족내에서 더 많은 권위를 차지하고, 여자는 집안 관리와 자녀양육에 더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과 편부모 가족의 증가등과 같은 현대의 사회적 변화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고(Damji, 1994),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다.

지난 20년 이상 연구자들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었던 남성적 그리고 여성적 행동 특성이 공존하는 것, 즉 양성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Spencer & Helmreich, 1978). 또한 실제로 동일성내(within-gender)의 변화가 성간(between-gender)의 변화보다 더 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Lotte, 1981).

Bem(Bem, 1971)에 의하면 양성적인 사람은 성특성을 나타내는 사람과 비교해볼 때 사회적, 심리적으로 이점을 갖고 있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남성성 특질이 여성성 특질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Antill & Cunningham, 1979). 또한 Taylor 등 (Pei-Hue & Ward, 1993)에 의하면 남성성은 심리적 안정에 더 강하게 공헌하고, 남성성과 양성성 개인간에는 심리적 적응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양성성과 남성성이 모두 자아실현성(김선영, 1987), 자아정체감(최인아, 1988)등과 높은 관계를 보여 양성성과 남성성특성이 자기개

남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는 성역할 태도변화와 남녀가 착용하는 의복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쳤다. 즉 남녀의 엄격한 구분이 희박해 짐에 따라 남녀 의복은 유니섹스화 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의복, 몸치장, 행동에서 나타나는 유니섹스화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성역할태도와 의복과의 관계연구에서 개방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자는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냈고(원미숙, 1983; 최경희, 1984; 정삼호, 1977), 전통적, 보수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은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였으며(강혜원, 1979) 외모에 대한 관심, 동조성 및 유행에 관심이 높았다(최희순, 1988). 이선재(이선재, 1989)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개방적 성역할태도와 유니섹스 의복수용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다른연구(이주현, 1984; 원미숙, 1983; 최경희, 1984)에서는 성역할태도와 유니섹스 의복행동과의 관계에서 남자의 경우는 유의한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개방적 성역할 태도와 유니섹스 의복과 관련성이 없게 나타난 것은 성역할에 대한 견해가 개방성의 측면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자유스럽기(Damji, 1994) 때문이며 유니섹스화 경향도 여자가 남자 의복형태로의 접근이 그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과의 관련 연구에서, Davis(Davis, 1985)는 성별(생물학적 성) 그 자체가 심리적인 정체감(gender identity) 개념보다도 성과 관련된 의복(sex-related clothing)에 대한 행동을 더 잘 예측하게 한다고 하였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도 더 남성-특질적, 남성성의복을 입었고, 여자는 남자보다도 더 여성-특질적, 여성성의복을 입는 경향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은 성역할(sex-role) 행동과 일치된 의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남성성 집단은 남녀 모두 남성성의복을 입는 경향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로는 고정화된 남성적 의복유형은 兩性 보

두 사회적으로 더 잘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남성성으로서 범주화된 의복은 사회적 규범으로 볼 때 한쪽 성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상 한쪽성에 더욱 얽매인 여성성 의복보다는 남성성 의복으로 남녀 모두 그들의 정체체감을 표현하는 것에 더 큰 자유로움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현미, 임숙자(이현미, 임숙자, 1987)의 연구에서 남성성 유형의 여대생은 남성적 의복 스타일, 여성성 유형은 여성적 의복 스타일을 더 선호하여, 정체체감은 성과 관계있는 의복 스타일(음양의복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한 김윤정(김윤정, 1992)의 연구에서 남성성 유형은 의복의 개성과 심미성을 중요시한 반면, 미분화 유형은 의복의 동조성을 중요시 하였다. 韓·美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이명희(이명희, 1993)의 연구에서 미국남성의 경우 화려한 이미지는 양성성 집단이 가장 선호하였고, 여성성 집단은 선호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 여성의 남성성 집단은 다른 성역할 집단보다 남성적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고, 한국인 여성의 여성성 집단은 고전적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은 한국과 미국인 모두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역할 태도나 정체감은 의복과 관계가 있으므로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의복규범, 복식행동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용어의 정의

1. 의복규범

(1)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

의복규범에 있어서 응답자 자신에 대한 자기의 견해

(2) 의복규범에 대한 주관적 타인의 태도

의복규범에 대하여 본인 이외의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

(3) 의복규범의 하위변인

- ① 일반적규범 : 계절, 상황, 연령, 신분에 따른 외모 및 옷차림과 태도
- ② 정숙성규범 : 신체의 노출, 꼭 끼는 옷차림, 비치는 옷등을 착용하지 않는 옷차림과 태도
- ③ 성역할규범 : 여성은 여성다운, 남성은 남성다운 외모와 옷차림을 하는 태도
- ④ 학생의규범 : 학생다운 옷차림과 태도

2. 복식행동(동조성-개성)

(1) 동조성

준거집단의 의복규범에 맞추어 옷을 입으려는 행동과 태도

(2) 개 성

집단이나 다른 사람과는 달리 독특하게 표현하는 옷차림과 행동과 태도

3. 자아정체감

(1) 독특성

현재의 능력, 신체적-심리적 특성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상

(2) 자기수용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지각하고 왜곡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의복규범

의복규범 문항은 선행연구 (이명희, 1982 ; 박미애, 1991)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복규범 문항수

는 총 20개로서, 하위변인별로 보면 일반적규범 5개, 정숙성규범 5개, 성역할규범 5개, 학생의규범 5개 문항이다. 측정방법은 Likert-type의 5단계 평정법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규범을 준수하고 그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복식행동 및 자아정체감

복식행동 및 자아정체감은 선행연구(신옥순, 1977 ; 유덕화, 1991 ; 박미애, 1991)에서 사용된 문항을 선택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수는 복식행동은 하위변인에서 동조성-개성 5개, 정숙성 5개로 총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정숙성 문항은 의복규범의 정숙성규범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복식행동변인으로도 사용하였다. 자아정체감은 하위변인에서 독특성 4개, 자기수용 4개로 총 8 문항이 사용되었다. 측정방법은 Likert-type의 5 단계 평정법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성적이고, 독특성이 높으며, 자기수용성이 강한것을 의미한다.

(3)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 검사는 Bem(Bem)의 성역할 검사(Sex Role Inventory)를 근거로 작성된 선행연구(김재희, 1994 ; 이현미, 1987 ; 김선영, 1987 ; 최인아, 1984)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하였다. 문항 내용은 중성적 특성문항은 제외된 것으로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 특성 문항 각각 20개 문항씩 총40개 문항만 선택하였고, 측정 은 5점 척도로 만들어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34문항이 선정되어 사용되었다.

이 검사 결과에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34~170점이며,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 각각의 중앙치 51점을 기준으로 하여 4개 집단인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로 구분하였다. 즉, ① 남성성 및 여성성의 점수가 모두 높은 사람은 양성성집단 ②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고 여성성 점수가 낮은 사람을 남성성 집단 ③ 반대로, 여성성 점수가 높고 남성성 점수가 낮은 사람을 여성성 집단 ④ 남성성 및 여성성의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하이면 미분화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은 신뢰도를 산출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Cronbach's α 계수 및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20~30대 일반직장인 및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의복규범 문항은 각 문항과 문항의 합과의 상관계수로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구하고(내적합치도 범위: 0.58~0.88), 동조성-개성($\alpha=.528$) 및 자아정체감(특특성: $\alpha=.538$, 자기수용: $\alpha=.633$)과 성역할 정체감(남성성문항: $\alpha=.825$, 여성성문항: $\alpha=.726$) 문항의 경우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항은 총 67개 문항이었다.

2. 표집대상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은 인천시내 I 대학교 2곳, I 전문대학, K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남·녀대학생으로, 1994년 12월에 예비조사를 거친후, 199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년의 구분

은 대학의 경우에는 1~2학년을 저학년(301명)으로, 3~4학년을 고학년(319명)으로 하였으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학년에 취업에 관련된 실습이나 기다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의복과 관련하여 볼 때, 4년제의 4학년에 해당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여 1학년은 저학년으로 2학년을 고학년으로 간주하였다. 설문지는 1200부가 배부되어 653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한 것을 제외하고 배부 총 수의 약 52%에 해당되는 620부(남자~311명, 여자~309명)만을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X로 처리 되었고 연구문제 I은 평균과 t-test, II는 상관계수, 변량분석과 Scheffé range test, III은 다변인 회기분석, IV는 변량분석과 Scheffé range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V. 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 I. 각대상의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의 식간의 차이

1. 각 성별 및 각 학년별로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주관적 타인의 태도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표 1>은 각 성별 및 각 학년별 의복규범에 대한

<표 1> 각 성별, 학년별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인식의 평균 및 t검증

대상 태도 평균 의복 규범	남자 N=311		t	여자 N=309		t	저학년 N=301		t	고학년 N=319		t	전체 N=620		t
	자신 의 태도	주관적 타인의 태도		자신 의 태도	주관적 타인의 태도		자신 의 태도	주관적 타인의 태도		자신 의 태도	주관적 타인의 태도		자신 의 태도	주관적 타인의 태도	
	M	M		M	M		M	M		M	M		M	M	
일반적 규범	15.39	16.17	*** -4.39	17.20	17.46	-1.45	15.93	16.56	*** -3.26	16.64	17.05	* -2.55	16.30	16.81	*** -4.13
정숙성 규범	14.89	14.77	.63	17.12	16.02	*** 5.13	15.72	15.49	1.13	16.26	15.30	* 4.84	16.00	15.39	*** 4.23
성역할 규범	15.81	15.29	* 2.41	12.59	14.54	*** -9.42	13.97	14.87	*** -3.96	14.42	14.96	* -2.46	14.20	14.92	*** -4.53
학생의 규범	15.43	15.66	-1.49	16.48	16.37	.85	15.57	15.81	-1.63	16.31	16.20	.84	15.96	16.01	-.59

*** P<.001, ** P<.01, * P<.05

자신의 태도와 주관적 타인의 태도간의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을 산출하여 t-test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태도와 주관적 타인의 태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일반적규범($P < .001$), 성역할규범($P < .05$)으로 일반적규범은 자신의 태도보다 주관적 타인의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성역할규범은 반대로 주관적 타인의 태도보다 자신의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정숙성규범($P < .001$)은 주관적 타인의 태도보다 자신의 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 성역할규범($P < .001$)은 자신의 태도보다 주관적 타인의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은 일반적 의복규범에 있어서 자신보다 타인들이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고, 여학생은 타인보다 자신이 의복의 정숙성 규범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의식하였다. 성역할 의복규범에 대한 의식은 남·녀학생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남학생은 자신이, 여학생은 타인이 더 규범적인 것으로 의식하고 있어, 남·녀 간의 의식에 있어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옷차림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는 고정관념으로 보며 남성적 의복유형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의 경우 일반적규범($P < .001$)과 성역할규범($P < .001$)은 모두 주관적 타인의 태도점수가 높았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정숙성규범($P < .001$)은 타인보다 자신의 태도점수가 높았으며, 일반적규범($P < .05$)과 성역할규범($P < .05$) 점수는 모두 주관적 타인의 태도 점수가 더 높았다.

그러므로 저학년은 정숙성규범에 대한 자신이나 타인의 태도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의식하지만 고학년은 의복의 정숙성규범에 대하여 자신이 타인보다 더 규범적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저학년·고학년 모두 일반적 규범과 성역할규범에 대하여 타인이 자신보다 규범적으로 의식한 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복규

범을 일반 성인보다는 잘 따르지 않을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의복의 성역할 규범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유니섹스차림 등의 사실로 유추된다.

대상자 전체로보면, 학생의규범을 제외한 모든 규범에서 유의차가 나타나($P < .001$), 일반적 규범과 성역할 규범은 자신보다 타인이 더 규범적인 것으로 생각한 반면, 정숙성 규범은 타인보다 자신이 더 규범적으로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II.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복식행동, 자아정체감 및 성역할 정체감간의 관계

1.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복식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성별, 학년별로 의복규범과 복식행동간의 상관관계는 자신의 태도 점수를 사용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2>는 성별, 학년별 의복규범(자신의 태도)의 각 하위변인과 복식행동간의 상관계수와 그 유의성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성별로 동조성-개성과 의복규범과의 관계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일반적 규범, 학생의규범, 정숙성규범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성역할 규범은 $P < .01$ 수준에서 동조성-개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정숙성규범($P < .001$), 성역할규범($P < .05$)이 동조성-개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전체대상자로 볼때, 일반적 규범, 성역할규범, 정숙성규범은 각각 $P < .001$ 수준에서, 학생의규범은 $P < .05$ 수준에서 동조성-개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정숙성과 의복규범과의 관계에서 정숙성은 남-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의복규범변인들과 각각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전체대상자로 보면 일반적 규범, 학생의규범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성역할 규범은 $P < .01$ 수준에서 각각 정숙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정숙성이 높을수록 의복에 대하여 더 규범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성별, 학년별 의복규범(자신의 태도)과 복식행동간의 상관계수와 유의성 검증

복식행동 대상 의복규범	동조성-개성@		정숙성		동조성-개성		정숙성		동조성-개성	정숙성
	남 N=311	여 N=309	남 N=311	여 N=309	저학년 N=301	고학년 N=319	저학년 N=301	고학년 N=319	전체 N=620	전체 N=620
일반적규범	*** -.23	-.07	*** .38	*** .36	** -.14	* -.11	*** .40	*** .45	*** -.13	*** .43
성역할규범	** -.16	* -.12	*** .27	*** .31	*** -.19	** -.13	.06	** .14	*** -.16	** .10
학생의규범	** -.17	-.01	*** .30	*** .28	*** -.19	.04	** .40	*** .25	* -.08	*** .34
정숙성규범	*** -.29	*** -.27			*** -.23	*** -.25			** -.24	

*** P ≤ .001, ** P < .01, * P < .05, @ 점수가 높을수록 개성적임.

즉, 남자는 개성이 강할수록 의복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동조성이 클수록 의복규범에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미실(정미실, 1991)의 연구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일반적 규범을 더 따른다는 것과, 박미애등(박미애, 박찬부, 1994)의 연구에서 여학생은 동조적일수록, 정숙성이 높을수록 규범의식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체대상자로 볼때는 남학생의 경향과 일치한다고 할수 있다.

학년별로보면, 저학년의 동조성-개성과 의복규범과의 관계에서 성역할규범, 학생의규범, 정숙성규범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일반적 규범은 P < .01 수준에서 동조성-개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고학년의 경우 정숙성규범은 P < .001 수준에서, 성역할규범은 P < .01 수준에서, 일반적 규범은 P < .05 수준에서 각각 동조성-개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저학년의 정숙성과 의복규범과의 관계에서 일반적 규범, 학생의규범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고학년의 일반적 규범, 학생의규범은 P < .001 수준에서, 성역할규범은 P < .01 수준에서 각각 정숙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고학년은 정숙할수록 모든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의식이 높은 반면, 저학년은 정숙할수록 일반적 규범과 학생의규범을 중시하고 있으나 성역할규범과는 상관이 나타나

지 않아,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다운 또는 여자다운 옷차림과 정숙한 옷차림과 관련이 없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고학년의 학생의규범을 제외하고는 저학년, 고학년 모두 개성이 강할수록 의복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성별이나 학년에 상관없이 대체로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의식은 동조성과 정숙성이 클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복규범과 동조성-개성간의 관계에서 여자보다 남자,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더 높은 유의수준에서 상관을 보여 상관도가 더 뚜렷하였고, 의복규범과 정숙성과의 관계에서는 남녀 차이는 거의 없이 모두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학년별로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상관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2.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 및 동조성-개성은 자아정체감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성별, 학년별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 및 동조성-개성 변인이 자아정체감(독특성, 자가수용)과 상관관계가 있나를 알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 전체로 보면 독특성은 성역할규범(P < .001), 정숙성규범(P < .01), 일반적 규범(P < .05)

〈표 3〉 성별, 학년별 의복규범(자신의 태도) 및 동조성-개성과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계수와 유의성

자아정체감 대상	독특성		자기수용		독특성		자기수용		독특성	자기수용
	남자 N=311	여자 N=309	남자 N=311	여자 N=309	저학년 N=301	고학년 N=319	저학년 N=301	고학년 N=319	전체 N=620	전체 N=620
의복규범 복식행동										
일반적규범	-0.7	** -.15	.08	* .09	* -.11	-.04	-.03	.05	* -.08	.01
정숙성규범	** -.15	* -.14	.06	.04	*** -.17	-.05	-.08	.03	** -.11	-0.3
성역할규범	-.07	** -.16	.08	.05	-.05	*** -.21	.09	*** .23	*** -.13	*** .16
학생의규범	-.08	-.06	* -.11	-.06	* -.10	-.00	** -.15	* -.11	-.05	*** -.13
동조성-개성	*** .32	*** .23	.05	-.02	*** .29	*** .28	.08	* -.10	*** .28	-.01

*** P<.001, ** P<.01, * P<.05

과 부적인 상관을, 동조성-개성(P<.0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자기수용 변인은 성역할규범(P<.001)과는 정적인 상관을, 학생의규범(P<.001)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독특성은 정숙성규범(P<.01)과 부적인 상관을, 동조성-개성(P<.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수용은 학생의규범(P<.05)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 독특성은 일반적규범, 정숙성규범, 성역할규범과 모두 P<.01 수준에서 부적인 상관을, 동조성-개성과 P<.0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자기수용은 일반적 규범과 P<.05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에, 독특성은 정숙성규범(P<.001)과 일반적 규범(P<.05) 및 학생의규범(P<.05)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고, 동조성-개성(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수용은 학생의규범(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고학년에, 독특성은 성역할규범(P<.001)과 부적 상관을, 동조성-개성(P<.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수용은 성역할규범(P<.001)과 정적 상관을, 학생의규범(P<.05), 동조성-개성(P<.05)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특성이 높을수록 의복규범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한 박미애등의 선행연구(박미애, 박찬부, 1994) 결과와 그 경향이 동일하였다. 대학생 전체적으로 자기수용적일수록 의복의 성역할 규범의식은 높지만, 학생의 의복규범의식은 더 낮게 나타나, 박미애등(박미애, 박찬부, 1994)의 연구에서 자기수용적일수록 학생의 의복규범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여중생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은 학생의규범에 대한 의식이 낮지만 자기수용적인 정체감은 높아 중고시절의 학생의 복장규범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잘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여자는 자기수용적일수록 일반적규범에 대한 태도의식이 높고 남자는 학생의규범에 대한 태도의식이 더 낮아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모든 대상에서 독특성이 높을수록 개성적인 관계를 보였지만 자기수용은 고학년에서만 부적 상관을 보여 자기수용적일수록 동조적으로 나타났고, 동조성-개성과 자기수용과의 관계는 독특성과의 관계만큼 분명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3.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성역할 정체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

성역할 정체감 따른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대상의 성역할 정체감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4개 성격특성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의복규범변인, 동조성-개성변인의 평균을 산출하고, 집단간의 차이를 F-test, Scheffé test로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남학생 총 311명 중 여성성향을 가진 학

생이 과반수(N=164)를 넘어 남자 대학생의 여성화 경향의 성격특성을 보여준 반면, 여학생 총 309명중 여성성향의 학생은 114명, 남성성향의 학생이 141명으로 비교적 남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진 여학생이 더 많이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여성성과, 여학생의 남성성 특성 경향이 더 많아 성별에 따라 성 정체감은 일치하는 것 보다 반대의 특성을 보이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일반적규범(P<.01)은 저학년의 경우에만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차를 보였고, Scheffé 검증

<표 4> 성역할 정체감 집단에 따른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의식 및 동조성-개성 점수차이와 유의성

의복규범 동조성-개성	집 단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F
		M	N	M	N	M	N	M	N	
일반적규범	남 자	14.35	23	15.34	91	15.63	164	15.06	33	1.34
	여 자	16.04	23	17.23	141	17.44	114	17.06	31	1.65
	저학년	14.13b	23	16.27a	120	16.16a	132	16.81	26	4.56***
	고학년	16.26	23	16.72	112	16.57	146	16.87	38	.25
	전 체	15.19	46	16.49	232	16.37	278	16.03	64	2.51
정숙성규범	남 자	14.35		15.07		15.05		13.97		1.21
	여 자	15.6b		17.57a		17.04		16.45		3.39*
	저학년	14.00b		16.34a		15.84		13.81b		5.82*
	고학년	15.96		16.85		15.90		16.10		1.89
	전 체	14.98b		16.59a		15.87		15.17b		5.08**
성역할규범	남 자	14.87		15.30		16.40		14.94		3.69***
	여 자	11.65		12.99		12.21		12.84		2.02
	저학년	13.96		13.60		14.38		13.65		1.12
	고학년	12.57		14.21		14.96		14.10		2.99**
	전 체	13.26		13.96		14.68		13.92		3.27*
학생의 규범	남 자	13.74b		15.61a		15.58a		15.39		3.23*
	여 자	16.96		16.52		16.22		16.84		1.23
	저학년	14.30		15.94		15.49		15.38		2.69*
	고학년	16.39		16.41		16.16		16.58		.43
	전 체	15.35		16.17		15.84		16.09		1.67
동조성-개성	남 자	15.91		14.86		15.79		15.18		2.38
	여 자	16.48		15.45		16.39		16.03		2.72*
	저학년	16.56		15.26		16.25		15.27		3.39*
	고학년	15.83		15.17		15.84		15.82		1.34
	전 체	16.19		15.21b		16.03a		15.59		4.05**

*** P<.001, ** P<.01, * P<.05, 문자는 Scheffé-test ; P<.05

결과로 보면 남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이 양성성 집단보다 일반적규범의식이 더 높았다. 정숙성규범에 대한 태도의식은 여자($P < .05$), 저학년($P < .001$) 및 전체 ($P < .01$)대상에서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Scheffé 검증 결과로 보면 각 대상 모두 남성성 집단이 양성성 집단이나 미분화집단보다 정숙성 규범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규범에 대한 태도의식은 남자($P < .05$), 고학년($P < .05$) 및 전체($P < .05$)대상에서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차를 보였으나 Scheffé 검증 결과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점수로 비교하면 대체로 여성성 집단이 성역할규범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생의규범에 대한 태도의식은 남자($P < .05$)와 저학년($P < .05$)의 대상에서만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차를 보였고 Scheffé 검증 결과로 보면 남성성 및 여성성 집단이 양성성 집단보다 학생의 의복규범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비교적 성역할 정체감이 분명할수록 학생다운 차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동조성-개성 변인은 여학생($P < .05$), 저학년($P < .05$) 및 전체대상자($P < .01$)에서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차를 보였고 Scheffé 검증 결과로 볼때, 전체대상자로 보면 여성성 집단은 남성성 집단 보다 개성적이고 남성집단은 동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인자(이인자, 1976)의 연구에서 의복에서 개성적인 것을 특히 강조하는 사람은 여성적인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김재희(김재희, 1994)의 연구에서 남성성 성격이 강한 사람이 개성적인 면이 강하고, 여성성 성격이 강한 사람이 동조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때,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차가 가장 빈번했던 의복규범·동조성-개성변인은 정숙성규범(전체, 여학생, 저학년), 성역할규범(전체, 남학생, 고학년), 동조성-개성(전체, 여학생, 저학년)이었고,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차를 보인 의복규범변인수로 볼때 여학

생(정숙성규범)보다 남학생(성역할규범, 학생의규범)이 더 많았으며, 고학년(성역할규범)보다 저학년(일반적규범, 정숙성규범, 학생의규범)이 더 많게 나타났고, 성별, 학년 통합해서 저학년이 가장 많았다. Scheffé 범위 검증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성성집단은 일반적규범, 정숙성규범, 학생의규범에 대한 태도 및 동조성이 가장 높았고, 여성성 집단은 일반적규범, 학생의규범에 대한 태도 및 개성이 높았다. 반면 양성성 집단은 일반적규범, 정숙성규범 및 학생의규범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의복규범과 동조성-개성은 양성성이나 미분화집단보다 성역할 정체감이 한가지방향으로 분명한 집단들이 더 높아, 규범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III.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 동조성-개성, 자아정체감, 성역할 정체감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

1.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성별, 학년, 동조성-개성, 자아정체감 및 성역할 정체감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I, II의 결과를 토대로, 각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이며, 어느정도 강하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복규범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 학년, 동조성-개성, 자아정체감(독특성, 자기수용), 성역할 정체감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변인 회귀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성역할 정체감이 한방향으로 뚜렷한 집단들이 더욱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높았기 때문에, 남성성집단과 여성성집단을 백하여, 남성성 0, 여성성 1로, 성별은 남학생 0, 여학생 1로, 학년은 저학년 0, 고학년 1로 분석하였다. 다변인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적규범에 대하여 학년과 자아정체감은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P < .001$), 동조성-개성($P < .01$), 남성성-여성성($P < .05$)으로 나타났다. 즉,

〈표 5〉 의복규범에 대한 다변인 회귀분석

의복 규범	Variables	Multiple R	R ²	RSQ Change	B	Beta	T
일반 적 규 범	성별	.317	.101	.101	1.968	.324	5.736***
	동조성-개성	.370	.137	.036	-.186	-.175	-3.098**
	남성성-여성성	.386	.149	.012	.901	.112	1.986*
	constant : 15.254 F : 15.972***						
정 숙 성 규 범	성별	.353	.125	.125	2.523	.376	7.180***
	동조성-개성	.501	.251	.127	-.402	-.343	-6.516***
	남성성-여성성	.512	.262	.011	.942	.106	2.016*
	constant : 17.709 F : 32.484***						
성 역 활 규 범	성별	.347	.120	.120	-2.321	-.335	-5.976***
	독특성	.378	.143	.023	-.242	-.151	-2.692**
	constant : 20.607 F : 22.917***						
학 생 의 규 범	성별	.287	.082	.082	1.251	.266	4.584***
	동조성-개성	.328	.108	.026	-.130	-.158	-2.798***
	학년	.355	.126	.018	.647	.140	2.481*
	자기수용	.372	.138	.012	-.102	-.115	-1.981*
	constant : 16.208 F : 10.937***						

*** P<.001, ** P<.01, * P<.05

일반적 규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로 총 변량의 10.1% 정도 예측하며, 세가지 독립변인이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 중 일반적규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약 14.9% 정도였다. 이 결과에서 의복의 일반적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여학생들이 동조성이 높고 여성성인 경우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정숙성규범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P<.001), 동조성-개성(P<.001), 남성성-여성성(P<.05)으로 나타났다. 이 세가지 변인중 성별은 총 변량의 12.5% 정도 정숙성규범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세가지 독립변인이 정숙성규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26.2%였다. 이 결과는 의복의 정숙성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의식은 여학생들이 동조적이고 여성성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규범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P<.001), 독특성(P<.01)으로 나타났다. 성역할규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성별로 총 변량의 12%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두가지 변인이 성역할규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총 14.3%였다. 이 결과는 의복의 성역할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남학생이 독특성이 적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규범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P<.001)과 동조성-개성(P<.01), 학년(P<.05) 및 자기수용(P<.05)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의규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로 총 변량의 8.2% 정도 설명할 수 있으며, 4가지 변인이 학생의규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총 13.8%였다. 이 결과에서 학생의규범에 대한 자신의 의복태도는 고학년 여학생들이 동조적이고, 자기수용적이 아닐수록 학생의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보았을 때 일반적 규범과 정숙성규범

모두 성별, 동조성-개성, 남성성-여성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성역할규범은 성별과 독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학생의규범은 성별, 동조성-개성, 학년, 자기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의복규범 4가지 하위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중 성별은 4가지 종속변인 모두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독립변인이었고 동조성-개성(3가지), 남성성-여성성(2가지)순이었다. 일반적 규범과 정속성 규범은 동일하게 성별, 동조성-개성, 남성성-여성성의 3가지 독립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일반적 규범과 정속성 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 종속변인임을 보였다. 또한 독특성과 자기수용은 각각 성역할규범과 학생의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자아정체감은 대학생들의 성역할규범과 학생의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IV.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의식 차이 (주관적 타인의 태도-자신의 태도)점수의 독특성 수준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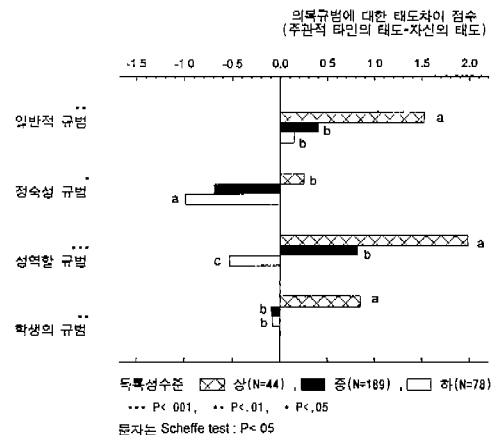
1.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의식 차이(주관적 타인의 태도-자신의 태도)점수는 독특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심리적 변인중 독특성은 자기수용에 비해 의복규범의 여러변인들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의복규범과 독특성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별, 학년별로 독특성 점수분포를 기준하여 1:3:1의 비율로 상:중:하 수준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로 의복규범 하위변인의 의복규범에 대한 두가지 태도간의 점수차이의 평균을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의복규범에 대한 본 연구조사에서 의복규범에 대한 주관적 타인의 태도란 의복규범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어느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고, 의복규범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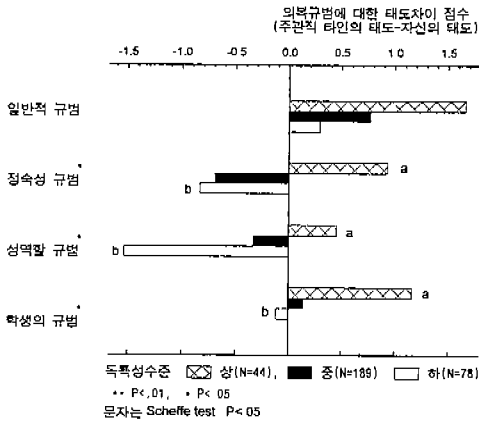
한 자신의 태도란 응답자 자신의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의식의 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복규범에 대한 주관적 타인의 태도점수에서 자신의 태도점수를 뺀 차이점수의 크기는 대상자들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독특성이 클수록 차이가 클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자들의 의복규범 하위변인에 대한 주관적 타인의 태도점수에서 자신의 태도점수를 뺀 차이점수를 독특성 수준(상, 중, 하)에 따라 평균치로 산출하여 F-test 및 Scheffé-test로 검증하였다. 이 결과를 각 대상별로 나타낸 것은 그림 1~5와 같다. 그림에서 +방향으로 수치가 커질수록 주관적 타인의 태도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방향으로 수치가 커질수록 자신의 태도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특성이 높을수록 의복규범에 대하여 자신은 잘 따르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므로 +방향의 수치가 커진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먼저 그림 1에서, 전체대상자의 독특성 수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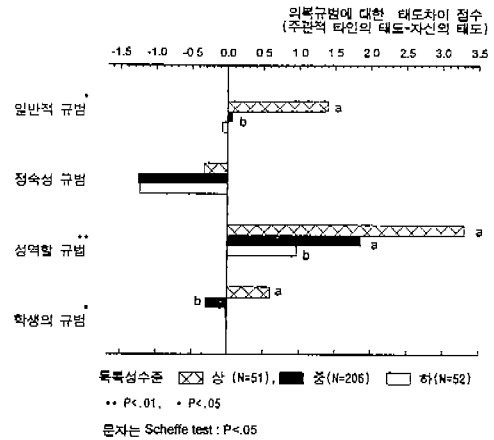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전체의 독특성수준에 따른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차이(N=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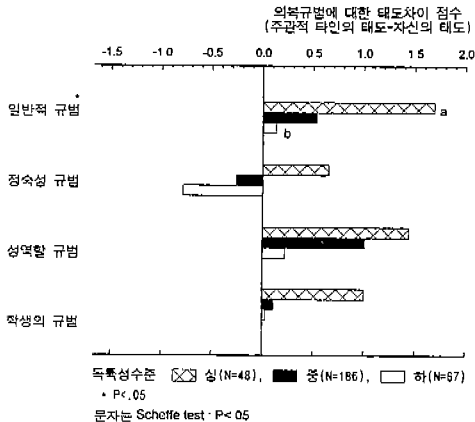
따라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의식 차이(주관적 타인의 태도-자신의 태도)점수에서 유의차를 보인 변인은 성역할규범(P<.001), 일반적규범(P<.01), 학생의규범(P<.01) 및 정속성규범(P<.05)의 모든 변인 이었다. 이를 Scheffé 범위 검증으로 보면 모든 변인에서 독특성 수준 上집단인 中 또는 下집단보다 의복규범에 대한 주관적 타인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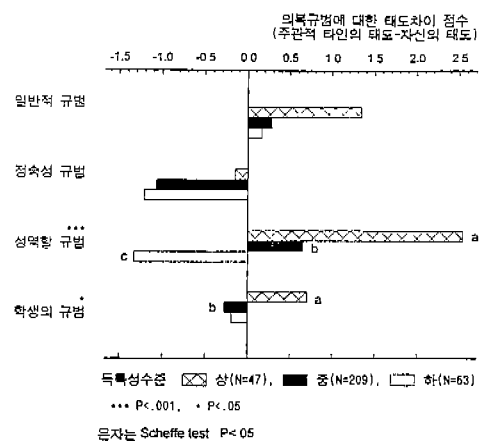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의 독특성수준에 따른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차이(N=311)



<그림 3> 여학생의 독특성수준에 따른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차이(N=309)



<그림 4> 저학년의 독특성수준에 따른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차이(N=301)



<그림 5> 고학년의 독특성수준에 따른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차이(N=319)

의식이 높았다. 독특성이 하집단중에서 자신의 태도의식이 타인의 태도 보다 가장 높은 것은 정속성 규범이었고, 다음으로 성역할 규범으로 성역할 규범은 독특성 上, 中, 下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中, 上 집단은 타인의 태도점수가 더 높았다. 일반적규범과 학생의규범은 中·下집단이 모두 上집단과 유의차를 나타냈고, 정속성규범은 上, 下집단간에 유의차를 보였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그림 2), 일반적규범을 제외한 모든 규범(모두 P < .05 수준)이, 여학생의 경우(그림 3), 정속성규범을 제외한 모든규범(일반적규범, 학생의규범은 모두

P < .05수준 ; 성역할규범은 P < .01수준)이 독특성 수준에 따라 유의차를 보였다. 저학년(그림 4)에서 일반적규범(P < .05)이, 고학년(그림 5)에서 성역할규범(P < .001), 학생의규범(P < .05)이 독특성 수준에 따라 유의차를 보였다.

남녀별, 학년별로 유의차를 보인 변인을 Scheffé 범위 검증으로 보면, 모든 변인에서 독특성 수준 上집단이 中 또는 下집단보다 의복규범에 대한 주관적 타인의 태도의식이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는 유의차를 보인 각변인 모두 독특성수준 上집단이 下집단 보다 주관적 타인의 태도의식이 높은 반면, 下집단은 자신의 태도의식이 더 높게 나

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일반적규범과 학생의규범은 上, 下집단간에 차이를 보였고, 성역할규범은 上·中 집단과 下집단간에 유의차를 보였다. 특히 여학생들은 성역할규범에 대한 태도에서 자신의 태도보다 주관적 타인의 태도의의식이 上, 中, 下집단 모두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여대생들의 옷차림이 개방적이고 유니섹스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박미애, 박찬부, 1994).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의 경우 일반적규범에서 독특성수준 上, 下집단간에 유의차를 보였으나 두집단 모두 일반적규범에 대한 주관적 타인의 태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고학년의 경우 성역할규범에서 上, 中 下 각 집단간에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下집단은 자신의 태도의의식이 더 높았고 上, 中집단은 타인의 태도의의식이 더 높았다. 또한 학생의규범에서 上, 中집단간에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上집단은 주관적 타인의 태도가 더 높지만 中집단은 자신의 태도의의식이 더 높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의차를 보인 모든 경우에 독특성수준이 높을수록 의복규범에 대한 주관적 타인의 태도의의식이 자신의 태도의의식보다 더 높았고, 여학생의 성역할규범과 저학년의 일반적규범을 제외하고는 독특성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태도의의식이 더 높았다. 독특성수준에 따른 유의차이는 학년별 보다 성별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남학생의 일반적규범과 저학년의 성역할규범, 학생의규범에 대한 타인과 자신의 태도의의식점수 차이는 독특성수준과 관계 없었지만 모두 타인의 태도의의식이 높았고, 여학생과 고학년의 정속성규범에 대한 두가지 태도차이가 역시 독특성수준과 관계 없었지만 모두 자신의 태도의의식이 더 높아 남녀간, 학년간의 의복규범에 대한 태도의의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수있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의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주관적 타인의 태도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성별·학년별 차이, 의복규범에 대한 두가지 태도차이(주관적 타인의 태도-자신의 태도)점수의 독특성 수준에 따른 차이 및 자신의 태도 의식이 복식행동·자아정체감 및 성역할 정체감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인천시내에 소재한 4개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집된 것 중 620명분의 자료를 분석·검토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 남-녀 대학생들은 일반적규범과 성역할규범에서 자신의 태도보다 주관적 타인의 태도의의식이 더 높고 정속성규범에서는 자신의 태도의의식이 더 높았다. 남학생은 일반적규범에 대하여 타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성역할규범에 대하여 자신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정속성규범을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성역할규범을 타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저학년, 고학년 모두 일반적규범과 성역할규범을 자신보다 타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고학년은 정속성규범을 자신이 타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첫째, 의복규범과 동조성-개성과의 상관관계에서, 각 대상별로 부적 상관관계가 많이 나타났다. 남학생과 저학년은 의복규범 각 하위변인 모두와, 여학생은 성역할규범·정속성규범과, 고학년은 일반적규범·성역할규범·정속성규범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속성과 의복규범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남·녀·고학년은 의복규범 모든 변인과, 저학년은 성역할규범을 제외한 일반적규범·학생의규범과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학생 및 저학년에서는 여학생 및 고학년에서 보다 의복규범과 동조성-개성과의 부적 상관관계가 더 많았고, 남·녀 및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의복규범과 정속성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동조성과 정속성이 강한 학생일수록 의복규범에 높은 의식을 갖고 더 순응하고 중요하

게 생각하였다.

둘째, 의복규범과 자아정체감과 의 상관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독특성은 정속성규범과 부적상관을, 자기수용은 학생의규범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독특성은 학생의규범을 제외한 의복규범 변인들과 부적상관을, 자기수용은 일반적규범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저학년의 경우 독특성은 성역할규범을 제외한 모든 의복규범 과 부적상관을, 자기수용은 학생의규범과만 부적상관을 보였다. 고학년의 경우 독특성은 성역할규범 과 부적상관을, 자기수용은 성역할규범과 정적상관을, 학생의규범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동조성-개성과 자아정체감과 의 상관관계에서, 동조성-개성과 독특성과의 관계는 각 대상에서 정적상관을 보였고 동조성-개성과 자기수용과의 관계는 고학년에서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독특성과 의복규범과의 상관관계는 여자 및 저학년이 남자 및 고학년 보다 더 많았다. 대학생들은 독특성이 강할수록 의복규범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개성적이며, 자기수용적 일수록 성역할규범 의식이 높고, 학생의규범 의식은 낮다고 하겠다. 또한 의복규범·동조성-개성과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는 규범변인에 따라 대상별로 차이를 보여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규범·동조성-개성의 변량분석에서 의복규범변인들과 동조성-개성은 대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규범에 대한 태도의식은 저학년의 남성성 여성성 집단에서 높게, 양성성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다. 정속성규범을 여학생·저학년 및 대상 전체의 남성성 집단이 가장 높게, 양성성 미분화 집단은 가장 낮게 의식하였으며, 남자·고학년 및 전체의 성역할규범에 대한 태도는 성역할 정체감과 유의성을 보였으나 집단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의규범은 남학생 및 저학년의 남성성 여성성 집단에서 높게, 양성성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다. 저학년은 집단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서 비교적 성역할 정체감이 분명할수록

학생다운 차림을 한다고 볼수 있다. 동조성-개성은 대상전체의 여성성 집단에서 높게, 남성성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남성성·여성성 집단이 양성성·미분화집단보다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의식이 더 높고, 또한 남성성집단은 동조성이 높은 반면 여성성집단은 개성이 높다고 하겠다.

Ⅲ. 일반적규범과 정속성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성별, 동조성-개성, 남성성-여성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동조적이고 여성적인 여학생들이 일반적규범과 정속성규범에 대한 태도의식이 더 높다고 하겠다. 성역할규범은 성별, 독특성에 의해, 학생의규범은 성별, 동조성-개성, 학년 및 자기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독특성이 적은 남학생이 성역할규범의식이 더 높고, 학생의규범은 자기수용적이 아닌 고학년 여학생들이 동조적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볼수있다. 의복규범은 성별, 동조성-개성 그리고 남성성-여성성 특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성역할 정체감은 일반적규범·정속성규범과 관계가 많고 반면, 자아정체감은 성역할규범·학생의규범과 관계가 많은 심리적 변인이라고 하겠다.

Ⅳ. 독특성수준이 높을수록(전체대상의 모든규범; 남자의 정속성규범, 성역할규범, 학생의규범; 여자의 일반적규범, 성역할규범, 학생의규범; 저학년의 일반적규범; 고학년의 성역할규범, 학생의규범) 의복규범에 대한 주관적 타인의 태도의식이 자신의 태도의식 보다 더 컸다. 반대로 독특성수준이 낮아질수록(중 도는 하) 자신의 태도의식이 더 커지는 경향이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 대학생들의 의복문화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의복에 대한 규범 의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남자는 자신의 성역할규범 의식이 높고 여자, 고학년은 자신의 정속성규범 의식이 높았다. 또한 남성성집단에서 의복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의식이 높게 나타나 남성성향의 대학생들이 가장 규범적이고 동조적인 집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과는 달리 대학생의 경우 고학년이 규범의식이 높게 나타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규범의식이 높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고교생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의복 동조성이 크기 때문에 의복규범 의식이 높고, 대학생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의식에 동조하려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경향은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도 도치(倒置)된 현상으로서 특이하며, 이는 유니섹스 모드의 신세대 패션을 뒷받침해주는 성격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세대 남녀들의 일반적 측면도 도치(倒置)된 현상으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선행연구들이 필요하므로 좀더 사회전반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95
- _____,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한 의상행위와 성격 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5, 1974
- _____,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한 사회심리학적 의복연구: 서울의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7(3), 1~11, 1979
- 강혜원, 이선경, “남·녀고등학생의 의복행동연구: 교복·사복 선호 및 적절한 의복유형을 중심으로”, 생활과학논집, 5,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7~29, 1991
- 高永復, 現代社會心理學, 法文社, 1977
- 김윤정, “남자대학생의 유행선도력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2
- 김재희,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와 성역할태도와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4
- 김명훈, 정영운, 심리학, 박영사, 1981
- 김병미, “청소년의 의복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3), 31~45, 1975
- 金宜英,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7
- 남미우,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 마가렛 미드, 趙惠貞역, 세 부족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 박미애, “여자중 고등학생들의 복장규범에 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및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박미애, 박찬부, “여자중 고등학생들의 복장규범에 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및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창간호, 1994
- 박선영, “청년기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8
- 박찬부, “여대생의 의복행태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4, 175~194, 1978
- 신옥순,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아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심리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7
- 염혜정, 조규화, “한국 신세대의 복식양식: 1980년대 신분과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6(3), 233~242, 1992
- 유덕화, “여자중고등학생들의 복식행동과 복장

- 규범에 대한 연구-학교에서의 복장규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이명희,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 _____,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7(3), 367~379, 1993
 - 이선재, “한국대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서울시내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이세아여성연구, 28, 숙명여자대학교, 이세아여성문제연구소, 171~193, 1989
 - 李仁子, “性格과 의복디자인 選好間의 相關關係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5(2), 69~83, 1976
 - 李仁子, 服飾社會心理學, 修學社, 1993
- 이재일, “X세대(신세대) 젊은이의 패션에 대하여” 패션문화, 14, 86~90, 1994
- 李志永, 李霓鎔, 洪承澈공역, 성격의 이론, 중앙적성연구소, 566, 1973, 신옥순, 전계서에서 재인용
 - _____, 성격의 이론, 중앙적성연구소, 1979
 - 이현미, “어머니와 딸의 성역할 정체감과 음양의복 행동간의 관계: 이대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이현미, 임숙자, “어머니와 딸의 성역할 정체감과 음양의복행동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11(3), 67~77, 1987
 - 李勳求편저, 심리학의 이해, 범문사, 1985
 - 이주현, “남자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 원미숙,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 원미숙, 강혜원,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37~44, 1983
 -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4
 - 전병제, 사회심리학, 경문사, 1986
 - 정미실, “규범적 및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 등 조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 정삼호, “진을 중심으로한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77
 - 정인희, 이은영, “의복과 자기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0(1), 207~217, 1996
 - 정하신, “여고생의 성격특성과 의복선택요인의 상관관계연구: 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4), 1~7, 1985
 - 최경희,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 최인아,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8
 - 최종립,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가정의 가치지향성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5
 - 최희순, “성역할 태도와 의복관심도와와의 관계: 제주도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한국일보 사회부,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상), 한국일보사, 1990
 - 藤原 康晴, “女子大生の被服の關心度と自尊感情との關係”, 日本家政學雜誌, 33(10), 548~552, 1982
 - 藤原 康晴, 藤田 公子, 山本昌子, “女子學生および中年女性の服裝に關する規範意識と獨自性欲求との關連性”, 日本家政學會誌, 40(2), 137~143, 1989
 - Antil J. K. & Cunningham J. D., Self-esteem as a function of masculinity in both

- sex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783~785, 1979, cited by Damji, T., & Lee, C. M., Gender Role Identity and Perceptions of Ismaili Muslim Men and Wome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2), 215~223, 1994
- Bem, S. 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2, 152~162, 1974
 - Berzonsky, M. D., Public self-presentations and self-conceptions: The moderating role of identity statu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6), 737~745, 1995, quoting E. E. Jones, et al., Effects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on subsequent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407~421, 1981
 - Crawley, E., Nudity and Dress, 46~52, edited by M. E. Roach & J. B.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 Y. : John Wiley & Sons, Inc, 1965
 - Damji, T., & Lee, C. M., Gender Role Identity and Perceptions of Ismaili Muslim Men and Wome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2), 215~223, 1994
 - Davis, L. L., Sex, Gender Identity, and Behavior Concerning Sex-related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2), 20~24, 1984~1985
 - Eicher, J. B., & Roach-Higgins M. 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ress: Implication for Analysis of Gender Roles. *Dress and Gender*, edited by R. Barnes & J. B. Eicher, Berg Publishers, Inc., 1~28, 1993
 - Flügel, J. C., The Psychology of Clothes, N. Y.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1971
 - Horn, M. J., The Second Skin(2n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75
 - Horn, M. J. & L. M. Gurel,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 Kaiser, S.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N.Y. : Macmillan Publishing Co., 1990
 - Kefgen M. & P. T. Spech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Y. : Macmillan Publishing Co., 1976
 - _____,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3rd ed., (N.Y. : Macmillan Publishing Co., 1981
 - Leaper, C., The Use of Masculine and Feminine to Describe Women's and Men's Behavior,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3), 359~369, 1995, quoting S. L. Bem, 1974 ; I. K. Broverman, et al., Sex-role stereotypes :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59~78, 1972
 - Lotte, B., A feminist critique of androgyny : Toward the elimination of gender attributions for learned behavior, In C. Mayo & N. M., Henley(Eds.), *Gender and nonverbal behavior*, 171~180, N.Y. : Springer-Verlag, 1981, cited by Leaper, C., The Use of Masculine and Feminine to Describe Women's and Men's Behavior,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3), 359~369, 1995
 - Pei-Hue, R. A., & Ward, C.,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models of psychological androgyn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3), 391~393, 1993, quoting M. C. Taylor & J. A. Hall, Psychological androgyny : A review and reformation of theories, methods and conclusions, *Psychological Bulletin*, 92,

347-366, 1982

- Roach, M. E. & Eicher, J. B., *Dress, Adornment and Social Order*, N.Y. : John Wiley & Sons, Inc., 1965
- Rosencranz, M. L., *Clothing Concept*, N.Y. : Macmillan Publishing Co., 1972
- Spencer, J. T. & Helmreich, R., *Masculinity and femininity :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relates, and antecedents*, Austine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cited by C. Leaper, op. cit., 1995
- Taylor, L. C. & Compton, N. H., *Personality Correlates of Dress Confor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60(8), 653~656, 1968
- Zentner, M. A., *Perception of Clothing Usage, Clothing Attitudes and Practices and Self-Acceptance*, Unpublished Doctor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ABSTRACT

Perceptions of Clothing Norms, Clothing Behavior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logical Variables of College Student

This study aims at 1) examining the perceived importance of clothing norms, 2) examining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clothing norms, cloth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variables-ego identity(uniqueness and self acceptance) and sex role identity, and 3) ascertaining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the perceived importance of clothing norms among variables-sex role identity and the uniqueness in psychological variables- and which variables are influencing on perception of clothing norms.

The perception of clothing norms inventory, clothing behavior inventory, ego identity inventory and the Bem Sex Role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620 college students. Sex role identity was classified into androgynous, masculine, feminine and undifferentiated type. Subjects were asked to rate each statement on the clothing norms under two kinds of instructions: their attitudes(TATT) and their beliefs about the expectations of others toward clothing norms(TBEO).

1) The scores of 3 TBEO of the students were higher than the scores of TATT. But the scores of TBEO concerning modesty of students were lower than the scores of TATT. Discrepancy scores of TATT and TBEO of the students were revealed significances differently according to clothing norms. Males, lower and higher class students had more free attitudes to the norms concerning general clothing attitudes. Females and higher class students had less free attitudes to the clothing norms concerning modesty. Females and lower and higher class students had more free attitudes to the norms concerning sex-role related clothing attitudes, but male students had less free to the sex-role related clothing norms.

2)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each variable of clothing norms and conformity-individuality were found. Bu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ose variables of the males and lower class students were higher than the correlations of the female and higher class students, and the former had mor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clothing norms and conformity as compared with the latter. An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each variable of clothing norms and modesty were

found. Bu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ose variables of the males, females and higher class students were higher than the correlations of the lower class students, and the latter had less positive relationship with clothing norms and modesty as compared with the former.

3)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lothing norms and uniqueness were found in the subjects groups. The females and lower class students had more negative relationships with clothing norms and uniqueness as compared with the male and higher class student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uniqueness and conformity-individuality were found in all subjects groups. Therefore, the higher uniqueness the student have, the less they perceive the importance of clothing norms and the more they have individualit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x-role related (higher class), general (female) clothing norms and self acceptance were found. But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ampus style (males, lower class, higher class) clothing norms and self acceptance were found. Clothing norms, therefore, related positively or negatively with self acceptance according to the subjects groups. An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onformity-individuality and self acceptance was found in higher class students.

4) The female masculine groups and the masculine groups of lower class revealed high scores than the scores of androgynous group and undifferentiated group in clothing norms concerning modesty. And the feminine group

revealed high scores in conformity-individuality than the scores of the masculine group. Male masculine and feminine group revealed high scores in clothing norms concerning campus style than the scores of the androgynous group. The masculine group and feminine group of the lower classes revealed high scores in general clothing norms than the scores of the androgynous group.

5) The most influencing variables on the clothing norms were sex, conformity-individuality and masculine-feminine variables in the right order. The general clothing norms and clothing norms concerning modesty were influenced by the sex role identity but the sex role related clothing norms and clothing norms concerning campus style were influenced by the ego identity.

6) Based on the sum scores of the uniqueness, each group of the subjects was separately segmented into "high, medium and low" groups. By the analysis of variances,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crepancy scores of TBEO and TATT among 3 uniqueness level groups were found on all clothing norms variables in all students, three clothing norms variables in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one clothing norms variable in lower and higher students, and in each clothing norms variable the mean discrepancy scores of the high uniqueness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discrepancy score mainly contributed to the results of correlations described above.